

II. 지역정보하이라이트

중동, 아프리카 지역

□ 쿠웨이트, L/C 거래시 유의사항

□ L/C 수령 즉시 꼼꼼히 확인한 후 조건이 까다로우면 Amend 요청

- 이라크전 이후 우리의 對쿠웨이트 수출물량이 증가하면서 이와 함께 양국 업체간 크고 작은 무역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- 이중 물품 수령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가, 대금만 수령하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의 악의적인 크레임은 비즈니스를 하는 당사자들의 양심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, L/C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아 우리업체가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L/C 거래시 유의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겠음.

□ 사례 1

- 중소기업인 A 사는 수입상 거래은행으로부터 L/C 하자를 이유로 페널티로서 추가비용 납부를 통보 받았고, A 사는 수출대금 수령을 위해 납부할 수 밖에 없었음.
- 수입상 거래은행이 트집 잡은 것은 원산지 증명서상에 수출업체가 제조업체라는 문구가 빠졌다는 것이었음. 물론 이 같은 조건은 L/C 조건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었으나, A 사는 이를 가볍게 여기고 서류작성시 누락시켰던 것이 화근이었음.

□ 사례 2

-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B 사는 L/C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고, 급기야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음.
- B 사가 거래를 포기했던 이유는 모든 부품별 중량을 Packing List 상에 명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, 자동차부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을뿐만 아니라 수량 또한 많다 보니 서류작성에 곤욕을 치른 것이었음.
- 상기 사례를 살펴보면, ‘사례 1’은 L/C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, ‘사례 2’는 L/C 조건을 Amend 요청 없이 무리하게 이행하다 보니 생긴 결과였음. 바꿔 말하면, L/C 조건을 처음부터 꼼꼼히 체크했거나, 조건이 까다로우니 이행전 수입상에게 Amend 요청을 했다면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음.
- L/C 발행시 통상적으로 수입상이 수출상을 골탕먹이기 위해 L/C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, 상기 사례의 경우는 수입상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쿠웨이트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었음.

- 쿠웨이트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거래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고객마인드가 전혀 없어 고객이 자기 돈을 맡기고도 이자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관수수료를 내야 할 정도로 악명이 높음.
- 최근 정부의 각종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구태의연한 업무관행은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로 부터 불평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사실임. 이에 따라 L/C 조건도 쿠웨이트 은행이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.
- 따라서 L/C 를 수령하면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보고,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로울 경우에는 즉시 수입상을 통해 Amend 요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수입상 입장에서는 본인이 요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할 것이며, 은행 또한 수입상의 요구가 있을시 별다른 이의 없이 Amend 를 할 것이기 때문임.

□ 1 만불 이하면 T/T로 하는 것이 바람직

- 여하간 L/C 를 통한 대금지불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1 만불 이하의 경우에는 L/C 보다는 T/T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- 아울러 L/C 조건시 결제일 단축을 위해서는 가급적 수출상의 거래은행과 관계가 있는 제 3 국 은행을 지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.

(문의처 : 쿠웨이트무역관 김유정 kyj@kotra.or.kr)